



백삼위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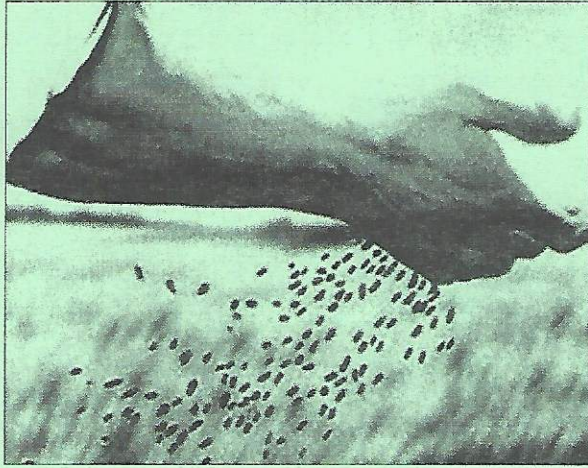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1주일

제35권 29호(나해) 2015년 6월14일

[묵상]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자라남 그것은 가능성이이다.

씨앗, 그것은 가능성이이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조그만 씨앗 안에 큰 나무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고 있는 거목들도

실은 아주 조그만 씨앗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세상에 뿌려지는 씨앗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이다.

지금은 비록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들은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랑이라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10: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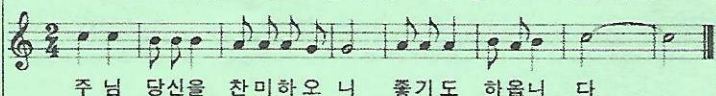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김운업 & 장무등 & 김훈규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현시영 요셉, 이용식 베드로,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김상진 토마스, 이재우 마티아, 한필훈,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종수 마틴, 구연석, 조지 가보라, 김 유리파 (생)서성용 베드로, 백지자 세레나 & 정규숙안나, 서준원, 제28차 성령쇄신대회, 이영석 크리스토퍼 가족, 이루시아, 김준 방지거 & 현석주 아오스딩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Ezekiel)17,22-24

화답송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 나이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 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제 2독서 코린도2서(Corinthians) 5,6-10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 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복음 마르코(Mark) 4,26-34

영성제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사슴	184	311
봉헌	382	259	259
성체	주품에	309	309
파견	기뻐하며 왕께	311	227

믿음의 사람, 나아만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용맹스럽고 충직한 신하였지만 불행히도 나병환자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하녀는 주인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가 주님의 병쯤은 쉽게 고쳐줄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갈대라도 움켜잡는 심정으로, 어린 하녀 말에 솔깃한 나아만은 입궐하여 왕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아만의 말을 들은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와 함께 금과 은, 옷 등 선물까지 주면서 병을 고치고 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는 옷을 찢으며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열왕 5,1-7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 예언자는 전갈을 보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관습으로 애도의 표시입니다. 또 먼지나 흙을 뒤집어쓰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의 편지에는 나아만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 집에 당도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시켜 나아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길래 나아만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러자 부하들은 어떤 말로 나아만을 설득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열왕 5,8-13

엘리사 예언자가 일러 준 대로 하니 나아만은 정말 나병이 낫고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은 이제부터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욕심을 내어 병을 고친 나아만을 따라가 선물을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게하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열왕 5,14-27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예언자가 내린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하들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이 나아만에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유일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내린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호 속을 채워 보세요! 루카 4,27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이 돋아 깨끗해졌다.”(2열왕 5,14)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만 깨끗해졌다.”(루카 4,27)

하느님의 시간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모두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트집 잡고 반대하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특히 버려지고 내쳐진 이들을 자비로운 하느님의 품 안에 모아 들이려고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분이 미쳤다고 여기면서 붙잡으러 왔고, 백성의 지도자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마귀 두목이라고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마르 3,21-22 참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럴까? 백성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이분을 반기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분이 정녕 메시아라면 뭔가 확실한 징표를 보여줘서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몇가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도 이에 속합니다. ‘농부가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지 않느냐? 하느님의 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확장된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온갖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하느님의 나라도 시작은 하느님의 나라 미미하지만, 그 끝은 장대하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고 희망을 가져라.’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시고,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희망을 갖도록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제키엘 예언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제1독서)

나라가 망해서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는 말라비틀어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제키엘은 낙담한 백성에게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주님

을 믿고 의지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희망하며 어떤 처지에서든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제2독서)

우리 역시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꺾이지 않는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결실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결실의 때와 방법은 온전히 하느님께 달려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다. 그리고 믿고 희망하며 묵묵히 사랑의 씨를 뿌립시다. 하느님은 우리가 내민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뿌린 씨앗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 손희송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당신의약점은

배움이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약점이 학벌은 아니었습니다.
일생 넉넉함은 살림살이였지만
가난이 아버지의 약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름 석 자, 식구들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명성 따윈 아버지의 약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랑 때문에 생긴,
아버지 유일의 약점은 바로 저였습니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재물봉헌자			토서3반 요셉회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진수 스테파노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박혜경 레나타
재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베드로 신부님, 요한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월24일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 축일로 손님신부님으로 저의 본당에 와계신 강동욱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또 6월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 축일로 오창근 베드로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남가주 남성 제39차 꾸르실료 주말

- 일시 : 6월 18일(목)~21일(주일)
- 장소 : 아씨시 피정의집
Poverello of Assisi Retreat Center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 수강자 : 김준 방지거
- 환영식 : 6월21일 (주일) 오후4시(강당)
- 봉사자 : 현석주 아오스딩
- 문의 : 남해나 분다 310)384-3289

◆요셉회 정기 총회 공고

- 일시 : 6월21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정기총회 안건 : 신임회장 선출및 회칙, 일년행사계획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2015년 제28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것이다.(루카 10:28)
- 일시 : 7월25일(토)오전 8시~오후 10시,
7월26(주일), 오전 8시~오후 6시

- 강사 : 황창연 신부(성필립보 생태마을 관장),
윤민재 신부(용인대리구 성령지도신부),
김경희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1301 Avenida Cesar Chavez
Monterey Park, CA 91754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준비물: 도시락, 물
- 문의 : 강아네스 ☎ (310)780-0369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마감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에서 알립니다. 2015-16 학년도의 장학금을 신청하시는 학생들은 요구되는 서류들을 6월 14(오늘주일)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Freshman이 되는 학생들은 입학 확인서 (Letter of Admission)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주일학교 종강안내

- 오늘주일 미사 중에 주일학교 종업식이 있습니다.
미사중 개근상및 모범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초등부는 미사후 주일학교시간에 은총시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15-201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4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13일부터 등록비 인상
(\$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14일(주일) *토복 : 흥합미역국 (\$3)
* 주일학교 : 햄 & 치즈 샌드위치(3,4학년)
- 6월21일(주일) *하버카슨:강된장 열무콩보리밥(\$3)
* 주일학교 : 주일학교방학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기정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정선 김정웅 김정희 김철민 나경흠 노혜숙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배태임 성미선 송영미 신경훈 신윤원 엄영희 유철희 육근주 윤화경 윤희동 이근모 이미예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이은경 이은록 이재용 이계옥 전정일 전정자 정규숙 정영모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지재환 최기남 최길주 최수복 최희숙 한장환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합계:\$4,010
성전헌금	강태홍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정선 김정희 김철민 나경흠 노혜숙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성미선 신경훈 유철희 윤화경 윤희동 이근모 이미예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정규숙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지재환 최길주 한장환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합계 : \$1,845
주일미사 헌금 : \$2,688.15		체육대회 남은쌀판매 : \$179.85
성물판매 : \$951.50		2차헌금 : \$654

공지사항

◆주일학교 썸머캠프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일시: 6월26일 금요일 - 6월 28일 일요일
- 대상: 3학년-12학년 (선착순 30명)
- 참가비: \$60 (no refund)

◆한국학교소식

- 2014~15년도 종업식: 오늘주일(14일)(1:30 ~ 3:00 pm)
- 2015-16년도 새 학기 등록
기간 - 5월 31일 ~ 6월 14일 매주 일요일
시간 - 10:30 am ~ 12:00 pm
* 6월 14일 까지 등록 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수강 신청
기간 : 6월 20일~8월 8일 매주 토요일(7월 4일 제외)
시간 : 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 7월 17일(금) ~7월 19일(일)
- 대상 :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Peter Koo (213)605-281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

- 일 시 : 7월 31일(금) ~8월 2일(주일)
- 지도신부 : 하태수신부(예수회)
- 참가비: \$270(독방, 숙식제공)
- 신청마감 : 7월 17일 ,선착순18명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문의 : 정도로테아(323)937-2083, (818) 321-9505
전글라라(818) 317-6022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차 장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엄영희 베로니카 539-3377 6/10(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6/13(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병찬 안토니오 780-3258 6/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명필 라파엘991-8556 6/13(토) 오후 7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변숙희 킷다 617-1132 6/12(금)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겨 625-3312	조정석 수산나 625-3312 6/26(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634-6923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6/20(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미열 클라라 404-1607 6/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749-3151 6/13(토) 오후 7시
	2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중두 요한 213-700-6983 6/12(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6/20(토) 오전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반나영 체칠리아 617-3568 6/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요셉회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29> 최양업 토마스1.
(1821~1861년)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최양업 토마스는 1821년 3월, 충남 청양의 다락골 인근 새터 교우촌에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복자 이성례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835년 말, 조선 잡압에 성공한 모방 신부는 즉시 전국의 신앙 공동체를 순회하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초, 수리산 마을의 최경환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방 신부는 거기서 장래가 촉망되는 최양업을 한국의 첫 신학생으로 선발했는데, 당시 최양업의 나이 15세였습니다. 신학생으로 선발된 최양업은 1836년 2월, 서울의 모방 신부 댁에 도착하여 라틴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모방 신부가 신학생으로 간택한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3월14일에, 김대건 안드레아가 7월 11일에 각각 도착하여 함께 생활했습니다. 최양업은 1836년 12월3일,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에 손을 얹고 순명을 서약한 후 마카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중국대륙을 남하하여 다음해 6월7일, 마카오에 있던 파리의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 도착한 그들은 이때부터 그곳에 임시로 설립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카오 유학은 1842년까지 계속되었는데, 1837년 11월에는 동료 최방제가 열병으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고, 1839년에는 마카오의 소요 때문에 필리핀의 마닐라로 잠시 이동하여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최양업은 만주의 소팔가자로 거처를 옮겨 조선 대목구의 부 주교인 페레올 주교에게 수업을 받았고, 1843년에는 리브와 신부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무염 성모 성심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조국에서 일어난 박해와 순교자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최양업이 프랑스로 돌아간 스승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따라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것처럼, 장렬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내 동포들이며, 이렇듯 용감한 내 겨레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당신 팔의 전능을 보이소서. 언제쯤이나 저도, 신부님들의 그다지도 엄청난 노고와 제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 되어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최양업은 1844년 12월10일경, 김대건과 함께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대건 부제가 사제품을 받고서 페레올 주교, 성인 다블뤼 신부와 함께 조선에 입국

한 뒤에도 최양업은 소팔가자에 남아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귀국로를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다음 호에도 계속)

◆서울대교구 홍보국 위임

겸손을 가장한 교만

가끔 자려고 누워있다 보면 예전에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이불을 발로 뱅뱅 걷어차면서 머리를 쥐어박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후회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저의 ‘말하는 방법’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 받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차분히 말해도 충분할 텐데, 예전에 전 왜 그게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의견과 다르다는 건 나를 거부한다는 거야. 나를 욕하는 거지.’라고 단정 짓고는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하곤 했으니까요. 갖고 있는 손톱 발톱을 몽땅 세우고 으르렁 거렸으니, 제가 생각해도 ‘진상, 화상, 입상’이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더욱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너그러워졌고 생각도 깊어졌고 신앙심도 커져서 그때의 그 일이 다시 생기면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걸 보니 내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겸손해졌구나 싶기도 했죠. 이런 생각으로 과거의 절 한심하게 여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과거의 제 모습이 그대로 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심하게 여겼던 ‘과거의 모습’이었건만, 이제는 안 그럴 자신도 있었고 이제는 한 뼘 더 자란 나라고 철썩같이 믿었건만, 전 조금도 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 건지, 왜 이것밖에 안되는지 자책하느라 전 끝없는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신앙이 좀 자랐다고 생각했던 건 누구 생각이었는가? 나 스스로를 기록하다 여기는 것이야말로 교만 아닌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의 이런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느님께서 이번일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부족한 저 자신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크려면 한참 먼 저를 하느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한 뼘도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비로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서희정 마리아 / EBS 방송작가